

ATM 기기, 은행은 줄이고 편의점은 늘리고



▲ 한 고객이 편의점 내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GS25

한국의 시중 은행들이 ATM 기기를 줄이는 추세인 가운데 편의점은 반대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SBS'에 따르면 은행들은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ATM 기기를 줄이고 있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ATM 기기는 1만 6천여 대로 2년 새 1천900여 대 줄었다.

은행들이 ATM기기를 줄이는 가운데 편의점은 오히려 ATM기기 설치를 늘리고 있다. 이달 기준 편의점 3사(GS25, CU, 세븐일레븐)의 ATM기기 수는 모두 3만 1천700여 대로 이미 은행을 뛰어넘었는데, 2년 전보다 2천800여 대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ATM기기 설치를 늘리는 까닭은 현금 찾으러 왔다가 물건도 사는 편의점 점포 유입 고객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편의점 ATM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였던 부담스러운 수수료도 시중은행과 협의해 무료로 하다 보니 이용자는 더 늘었다. 실제로 한 편의점의 올해 ATM 거래 금액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편의점 ATM기기 이용자들은 수수료도 무료에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때 무척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근거리 소비망이라는 이점을 살려 편의점의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고금리에 부동산 매물 쌓이고 경매 급증

한국에서 높은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만 팔리지 않는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사이에 7천 건 이상 늘었고, 경매 진행 건수는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MBC'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역세권에 위치한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32평형은 작년 초만 해도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같은 평형이 경매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앞서 두 번의 경매에서 9억 원대에 나왔는데 입찰자가 1명도 없었다. 팔겠다는 부동산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문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약 8만 건, 한 달 새 7천 건이 늘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낙찰률은 26.5%에 불과하다. 4채 중 3채는 최저가에도 산다는 사람이 1명도 없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전세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고금리 탓에 내집마련보다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다 빌라의 전세사기 위험을 피해 아파트로 몰리기 때문이다.

올 초 5만 5천 건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으로 줄었고 전세값은 23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몰리는 20대 ... 10년새 60만명 대이동

비수도권을 벗어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간 20대 인구가 최근 10년간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동아일보'가 통계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은 59만 1,000명이었다. 이 기간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31만 2,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순유입 인구는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이고, 순유출은 그 반대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 등으로 향하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다. 실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대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66.5%)이었고 경기



▲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의 출근시간 모습.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cm.asiae.co.kr

(64.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20대 고용률(63.0%)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모두 전국 평균치(60.4%)를 웃도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쉬운 셈이다.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3만 6,000원을 받은 반면 비수도권 근로자는 344만

8,000원을 받았다. 수도권에서 일하면 평균 48만 8,000원을 더 버는 것이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의료 등 각종 인프라의 차이도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비수도권은 노동력이 부족해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